

발행인 백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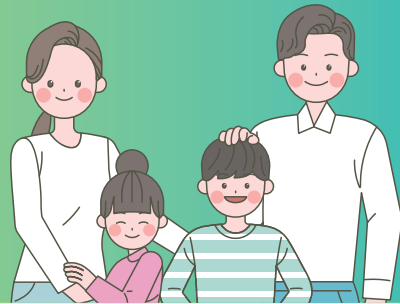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전 화 044-415-2209 / FAX 044-415-2369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7층

학부모 소식지



사이버폭력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좋은 대화'하기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나쁜 짓'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나쁜 짓에는 타인에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폭력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계속된 지도와 가르침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깐요.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도 문자나 음성, 이미지, 거짓 정보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청소년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은 점점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장시키며 사회적 관계 맺기도 배워갑니다. 친구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무엇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다면 당사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친구들로부터 고립된 느낌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주변 친구들이 모두 '가해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날 것입니다. 개인 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길 것입니다.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학교 가는 것조차 싫게 되어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적 죽음에 빗대어 사이버폭력을 '사회적 죽음'

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은 청소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청소년의 이런 상황을 단지 어른이 되는 과정의 하나인 '통과의례'로 여기거나 "몽둥이와 돌로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로는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식으로 하찮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피해 자녀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뺏거나, SNS 이용을 막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자녀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이버폭력에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대화법에서 해법을 찾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 대화란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대화법입니다. 가령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묻는 순간 청소년은 입을 닫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부모와 논쟁을 원치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요즘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여는 대화법을 써야 합니다. "요즘 너와 네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뭐니?", "오늘 카카오톡에서 친구가 내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 뭐야. 좀 불쾌했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귀를 여는 경청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통로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의 디지털 생활을 이해하고 관심도 많음을 대화를 통해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두고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앱이나 콘텐츠를, 무슨 이유로 쓰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대화해야 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평소 디지털 생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부모에게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을 숨겨 사태가 악화돼서야 부모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신뢰 관계형성은 사이버폭력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좋은 대화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온라인 게시판 비방글,
악성댓글, 욕설 등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형태의
사이버폭력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

사이버 갈취



사이버머니, 금품 갈취형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 행위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어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영상 유포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특정 신체부위 및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우리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관찰된다면?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 출처: 2024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리플릿(보호자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자녀가 갑자기 **SNS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한다.



2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



3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보거나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사이버폭력, 자녀에게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SNS와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는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된 사람의 제안을 따르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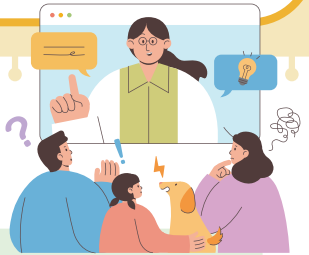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을 **수락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정보와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온라인 상담 제공



위(wee)클래스

- 위(wee) 클래스·센터·스쿨 상담제공
-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안내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청소년 **1388** 청소년 **1388**

-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
- 웹 심리검사 제공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방학을 맞아 자녀가 게임을 더 오래하지는 않을까,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게임과몰입 자기진단을 해보세요!

게임과몰입은 성격, 가정환경,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YES NO

1 게임애기만 하거나, 대화 중에 **게임 용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YES NO

2 학교, 학원, **약속시간**을 어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나요?

YES NO

3 게임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 **메신저**를 주고받나요?

YES NO

4 **대화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요?

YES NO

5 취미활동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게임 외 활동**이 점점 줄어드나요?

학부모 참여 이벤트



자녀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실천가능한 방법**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드립니다.

* 구글 폼에 가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